

치 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벽을 밝히는 닭의 상서로움이 가득한 이 때에 더불어민주당 불자회 오영훈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에서 닭은 마음의 어지러움을 쫓아내고, 불성을 지켜주는 군다리(軍荼利) 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도 마음속에 항상 군다리 보살의 상서로운 서원을 간직하여 ‘참 나’를 찾아가길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국회에도 불자모임들이 있어 왔으며, 현재는 소속 정당을 넘어 정각회와 직원불자회를 중심으로 신행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불어민주당의 불자회가 불자로서의 신심과 원력을 깊게 새기고, 국민과 나라의 행복을 발원하는 오늘은 매우 소중하고 반가운 일로 여겨집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중심에서 당원과 당직자까지 확장한다고 하니, 그만큼 의미와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불은(佛恩)에 항상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모두는 번뇌로 가득찬 무명(無明)의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기를 발

원하고, 나아가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내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다짐이로 깊이 간직하고, 탐·진·치의 삼독(三毒)에서 헤어 나오겠다는 정진 또한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 어떤 등불보다도 오래 타올랐던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교훈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임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취임하는 오영훈의원은 “늘 낮은 자세로 함께하며 마음에 새기겠습니다.”라는 신념으로 매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자의 자긍심으로 정각회 소임도 성심으로 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리고 불자로서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 가겠다는 책무와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력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오영훈 회장님의 당당함과 자긍심은 항상 모두에게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정진의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고, 늘 그래왔듯이 전통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의 행복으로 널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서원과 실천이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나라와 국민의 앞길을 밝혀주는 밝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